

'이몽'은 모든 독립운동가 기리는 드라마

최진실 아들 환희 "오랜만입니다"

tvN 예능 '애들 생각' 통해 일상 공개

MBC드라마 '이몽' 기자간담회

"약산 김원봉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는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다른 생각들, 노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드라마는 '이몽'(異夢·다른 꿈) 안에 숨겨져 있는 일몽(一夢·하나의 꿈)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MBC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야심 차게 준비한 드라마 '이몽'의 운상호(51) PD는 9일 오후 마포구 상암 MBC 사옥에서 진행된 '이몽' 기자간담회에서 약산 김원봉과 드라마 간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했다.

운 PD는 '태왕사신기' (2007)와 '사임당 빛의 일기' (2017) 등으로 유명하다.

'이몽'은 일제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일본인 손에 자란 조선인 의사 이영진(이요원 분)과 의열단장 김원봉(유지태 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첩보 액션 드라마로, 첫 방송은 내달 4일로 예정됐다.

운 PD는 최근 정치권에서 서훈 논쟁이 불은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에 대해 "약산의 일대기를 다루는 건 굉장히 예민한 소재일 수 있다"며 "다만 약산이라는 인물이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열단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일부에 가장 위협적이었던 단체고 약산은 그 단체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상징적으로 내세웠다고 보면 된다. 많은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이 (약산에) 투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이몽'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 약산 김원봉 일대기 소재

유지태·이요원 주연... 40부작 사전제작 내달 4일 첫방

약산 김원봉을 연기한 배우 유지태에 대해 운 PD는 "큰 나무 같은 느낌이 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다가왔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지태 본인도 정치적으로 곤란한 질문과 역에서 부담감을 갖고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취지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고 본인도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먼저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 연기자로서 독립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몰입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몽'을 기획한 김승모 CP는 기획 의도에 대해 "작년에 '이몽'을 만들기로 결정할 때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인데 MBC가 이걸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일 컸다. 그다음에서야 재무적인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며 "'이몽'은 사업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꼭 만들어져야 하는 드라마"라고 강조했다.

김 CP는 이어 "독립운동가를 기리려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보면 안 되니까 첩보, 로맨스, 액션 등 드라마적 공식도 많이 넣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드라마 예고편 시사에선 유지태가 영화 '암살'의 조승우, '밀정'의 이병헌이 연기한 김원봉과 사뭇 다른 존재감을 뽐내면서 기대감을 자아냈다.

'이몽'은 드라마 '아이리스', '아이리스2' 등을 집필한 조규원 작가가 극본을 담당하며 이요원, 유지태, 임주환, 남규리 등이 출연한다.

100% 사전제작이며 총 40부 가운데 현재까지 30부가 제작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0대 친구들의 '말뎡'입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듬직한 고등학생이 된 배우 고(故) 최진실의 아들 최환희(18·사진)가 8일 첫방송을 시작한 tvN 예능 '사춘기 리얼 토크-애들 생각'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의 유쾌한 일상을 공개했다.

'애들 생각'은 부모와 사춘기 자녀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부모들이 그동안 알지 못한 10대들의 속마음과 행동을 들여다보는 내용이다. 스타 자녀 예능인 '동지탈출'의 김유곤 CP 등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진행도 '동지탈출'에서 함께한 개그맨 박미선이 맡았다.

최환희는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이런 제작발표회 자리가 저한테는 처음이라 신기하다. 최대한 정성껏 답하겠다"고 차분하게 인사했다.

최환희는 이전에도 MBC TV '위대한 유산' 등 다수 예능에 얼굴을 비친 했지만, 제작발표회 같은 공식 석상에 오르는 이번이 처음이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키가 180cm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자란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출연 계기에 대해 "제가 방송에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많고 '애들 생각'이란 프로그램 설명을 보고 생각이 든 게 내가 '말뎡'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며 배우는 것도 있겠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최환희는 또 5년 전 방송에서 배우가 꿈이라고 밝혔는데 장래희망에 변동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확실하게 배우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고 그걸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송 출연과 관련해 "(홍)진경 이모나 (이)영자 이모가 방송 출연 소식을 듣고 '잘할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동생

(최준희 양)도 저만 방송에 나오니 질투할 수도 있는데 착해서 그냥 '잘하고 오라'고 이해해준다"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최환희 외에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인기를 얻은 가수 유선호와 '동지탈출'을 통해 한층 성장한 모습을 공개한 박연수의 딸 송지아, 메이저리그 코치 홍성흔의 딸이자 아역 배우로 활동하는 화리, 앵커 박종진의 딸 민, '정답 소녀' 김수정, 아나운서 박찬민의 셋째 딸 민하, 모델 배우진도 출연한다.

송지아는 "7살 때 MBC TV '아빠! 어디가?'에 출연하고 이제 13살이 됐다"라고 웃었다. 이에 송지아와 오래 함께 방송한 김유곤 CP는 "송지아가 정말 배우 어린스러워졌다"고 공감했다.

한편, '동지탈출'과 거의 흡사한 포맷인데 대해 연출 총책임자를 맡은 김유곤 CP는 "'아빠! 어디가?'부터 오랜 시간 가족 예능을 연출하고 있는데 '동지탈출'이 어른들의 시선에서 많이 비라본 것이라면 '애들 생각'은 아이들 시선이 많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배우 신동미·허규 부부 SBS '동상이몽 2' 합류

배우 신동미(사진)와 허규 부부가 SBS TV 부부 관찰 예능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 합류한다.

SBS는 최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에서 풍상 아내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신동미와 그의 남편 허규가 '동상이몽 2'에 출연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상이몽'의 김동욱PD는 "신동미-허규 부부가 등장했다."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4년간 함께 살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기존의 동상이몽 부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플 일상은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뱅커(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55나의 독립 영웅(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윈손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야 콩도령(재)		25 꾸러기 식자교실 55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속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대 3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20 슬플 때 사랑한다(재)	00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 담양	00 도봇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임정 100주년 특집 기억록	00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다큐 임시정부 루트를 가다
7	00 KBS 뉴스7 20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40 윈손잡이 아내	15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10 제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8	25 나의 독립 영웅 30 비켜라 운명(재)	2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 내가 사랑한 이리랑 1~2부	35 MBC 뉴스데스크	00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특집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10	00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55 UHD 송터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뱅커	00 빅이슈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킴블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어리 4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두다다쿵
05:30 통일의 길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뽀뽀 뽀로로
06:00 한국기행(재)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00 원더볼즈(재)
07:00 레전드더어로 삼국전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EBS 뉴스
07:30 출동! 슈퍼핑크	<참치 케사디아와 망고 라씨>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엠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안데스 방랑기 4부 안데스 천년의 기록>
08:45 람달라 뿌우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1:30 한국기행
09:00 두다다쿵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두뽀뽀뽀 섬진강 4부 봄바람 시샘해도>
09:30 몰랑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출동! 슈퍼핑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30 람달라 뿌우(재)	
<삼겹살구이와 갈치숙젓 주먹밥>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1일(음 3월 7일 戊寅)

<p>子</p> <p>36년생 드러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다. 48년생 꽃방석에 앉아서 호강하겠다. 60년생 다양한 방법의 개발은 생산성을 높인다. 72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다. 84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75</p>	<p>午</p> <p>42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54년생 불경적이 추진하던 일에 차질을 줄 수 있다. 66년생 쌓아 놓은 공로로 인해 부가적 이익이 발생한다. 78년생 주변인의 평에 귀 기울이자. 90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행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8, 59</p>
<p>丑</p> <p>37년생 제안서에 과감한 결단과 적절한 실행이 필요하다. 49년생 오랫동안 공들여 왔던 곳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61년생 완장도를 높여야 할 때이다. 73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85년생 기본적인 형식을 중시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4, 68</p>	<p>未</p> <p>43년생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되니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 55년생 참으로 난감 하리라. 67년생 확실치 조처해 야만 한다. 79년생 동쪽으로 진행 했을 때 능력이 극대화 될 것이니라. 91년생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새어 나가는 것이 없는 지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53, 12</p>
<p>寅</p> <p>38년생 한 번 금이 가면 회복할 수 없다. 50년생 소극적 이라면 불협화음의 씨앗이 된다. 62년생 성과가 불만족스럽겠다. 74년생 원만한 상태이니 현재의 형국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86년생 과대평가 하고 있지는 않은 지 돌이켜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6, 71</p>	<p>申</p> <p>44년생 그대로 두면 난처한 입장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56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68년생 완전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다. 80년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 92년생 안전에 관한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9, 22</p>
<p>卯</p> <p>39년생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51년생 상대방의 대응이 있기 전에 선제함이 낫다. 63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75년생 지금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87년생 고생한 만큼 배려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82, 09</p>	<p>酉</p> <p>45년생 집착을 버리고 진을 정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57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 사실을 알라. 69년생 도전에 불만만 가치가 충분히 있다. 81년생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대비 해야겠다. 93년생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33, 37</p>
<p>辰</p> <p>40년생 기묘하게 연계 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2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 대우력이 약화 되리라. 64년생 생 저절로 풀릴 것이다. 76년생 지나치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펴 볼 일이다. 88년생 평소 소심하게 행동하는 곳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6, 43</p>	<p>戌</p> <p>34년생 한계를 느끼거든 즉시 선회하는 것이 옳다. 46년생 바람직한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다. 58년생 참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70년생 신년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82년생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이다. 행운의 숫자 : 36, 50</p>
<p>巳</p> <p>41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53년생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 되어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65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문제점이 보인다. 77년생 참으로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89년생 합리적이야만 결실을 맺는다. 행운의 숫자 : 11, 83</p>	<p>亥</p> <p>35년생 많은 재량이 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라. 47년생 생기는 하지만 보잘 것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 59년생 속단은 금물이다. 71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다. 83년생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71, 35</p>